

## 사회교리를 읽읍시다.

- **빠첸 인 테리스(PACEM IN TERRIS / 지상의 평화) 반포 50 주년** -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르셀리노 따니 다이지(谷 · 大二)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새로운 교황님을 맞이했고, 또한 사이타마 교구에는 새로운 사제와 부제가 탄생했습니다.

정말로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3 세의 회칙 [빠첸 인 테리스](1963 년)이 발표된 지 50 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사회교리는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최초의 사회교리이며, 평화와 인간 존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사회 주교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평화의 10 일간'까지 출판될 예정입니다. 레오 13 세의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 개혁)](1892 년)이 최초의 사회교리인데, 그 이후 많은 사회교리가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교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회교리는 사회에 복음을 침투시키고, 사회 그 자체를 인간적,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을 지키고, 해방시키며, 자유롭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교리는 진정한 교도권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도덕적 가르침처럼, 우리들 사목자, 신도는 이를 받아들이고 준수해 나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사회교리를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빠첸 인 테리스]가 발표된 시대

1962 년에는 이른바 '쿠바의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동서의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소련은 쿠바에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해상봉쇄와 화물선 검사 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찰기가 격추되고, 제 3 차 대전이 발발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이 어떻게 해서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차례로 독립하는 희망에 찬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구미와의

경제격차(남북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이러한 [시대의 징표]를 읽으시고, 이 사회교리를 통해서 핵무기 문제, 인권, 국가간의 대화와 평화의 과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 **지금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국제적으로 볼 때, 남북문제, 구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경제격차,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는 동서의 냉전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다국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주자에 대한 차별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격차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오끼나와의 미군기지, 원자력 발전소 등은 도회지와 지방간의 깔려있는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문제 등도 주변의 국가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빠침 인 떼리스]가 발표된 시대와 기본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 **사회정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 필요한 것은 사회정의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각각의 국가가 싸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 지상에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의입니다.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이며, 평등이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지금처럼 요구되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빠침 인 떼리스]를 근간으로 하는 여러 사회교리, 혹은 사회교리를 해설한 '교회의 사회교리 요강'(가톨릭 중앙협의회, 2009) 등이 있습니다. 우리들 사목자, 신도들은 이것들을 읽고, 나누며, 사회를 향해 외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 복음, 사회정의를 퍼뜨려 나아가는 복음선교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